

研究論文

근대소설에 나타난 타자성 경험의 이중적 양상 - 염상섭 「만세전」을 중심으로 -

홍 순 애*

-
- I. 들어가는 말
 - II. 관계성에 의한 환멸과 은폐의 시선
 - III. 일망감시적 시선에 의한 ‘분 보암’의 역학
 - IV. 자기고백을 통한 반성적 사유와 근대의 탐색
 - V.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I. 들어가는 말

1920년대가 근대소설의 형성기라는 점에서, 염상섭 소설이 재현하고 있는 식민지 상황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 한, 그리고 근대적 문물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염상섭 소설은 식민지 근대인에 대한 자기각성과 자기비판을 드러내며, 주체화 되는 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염상섭 소설을 다루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그의 소설은 충분한 담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염상섭은 1920년대 초부터 1960년대까지 30여 편에 가까운 장편소설과 150여 편에 이르는 중·단편을 썼다. 이에 걸맞게 염상섭 소설에 대한 비평과 연구 작업은 192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만세전」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염상섭 소설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현대문학 소설 전공(6426sun@hanmail.net).

의 초기 중·장편들과 함께 식민지 현실대응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거나, 관념적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의 바라본 연구들이다.¹⁾ 이 연구들은 대개가 1987년 이전에 행해졌는데, 특히 조남현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핍박상과 물질적인 면에서의 곤궁상이 극도에 달한 식민 통치 아래서, 또 이념의 양극화, 전쟁, 니힐리즘, 아노미, 4·19 등의 위기와 격변의 와중에서 이따따한 양의 작품들을 남겼다는 것은 비상한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²⁾고 언급한다.

두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서지학적 측면에서 원작론이나, 서사학적으로 서사구조와 수사적 특징을 고찰한 연구들이다.³⁾ 정연희는 “주인공이 식민지 현실에 대해 ‘방관자’이거나 ‘소극적인 관찰자’ 일 때는 서술자의 논평과 해설이 개입하여 서사의 전개를 주도하였으며, 주인공이 ‘적극적인 관찰자’가 된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서술권한을 주인공에게 유보한다”⁴⁾고 언급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술기법은 “서술자가 개인의 삶을 사회적, 역사적 삶의 지평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일관된 의도에 의한 서술전략”이었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심한 이론적 틀 속에서 이 소설이 지니는 서술상의 특질과 구조의 의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통속성, 근대성, 그리고 탈식민성이라는 문화사적인 측면에서의 위치를 고찰한 것들이다.⁵⁾ 나병철은 “인화가 계몽주체로 회귀하는 것

1) 채훈, 「<만세전> 론」, 『염상섭 연구』(새문사, 1982); 조남현 「염상섭소설의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시론」, 『염상섭 문학연구』(민음사, 1987); 김상태, 「염상섭문학의 날과 씨」, 『염상섭 문학연구』(민음사, 1987); 유병석, 『염상섭 전반기 소설 연구』(아세아 문화사, 1985).

2) 조남현, 위의 책, 75쪽

3) 이재선, 「<만세전> 원작론」, 『한국문학의 원근법』(민음사, 1996); 송하춘 「염상섭의 장편소설 구조」, 『염상섭 문학 연구』(민음사, 1987); 이선영, 「시각상의 진보성과 회고성」, 『염상섭 소설 전집 1』(민음사, 1987); 신종근, 『1920년대 문학의 재인식』(깊은샘, 2001); 남상권, 「「만세전」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40권(2002), 391~425쪽; 정연희 「「만세전」의 서술기법과 구조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3권(2000), 117~136쪽

4) 정연희, 위의 논문(2000), 133쪽

5) 유중호, 『염상섭』(서강대 출판부, 1998); 하정일,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소명출판, 2000);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문예출판사, 2001); 우정권, 「염상섭의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의 글쓰기 양상』(도서출판 월인, 2002);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과 일본』(소명출판, 2002); 김병규,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 「만세전」과 「삼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8권(2003), 173~195쪽; 오윤호, 「한국근대소설의 식민지 경험과 서사전략연구: 염상섭과 최인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20~50쪽

은 서구적 근대의 장 내부에 갇혀 있던 식민지 우파 지식인의 운명을 보여주는 셈”이라면서 이인화가 “조선의 전통보다는 서구적 계몽 이성으로 복귀하지만, 제국주의를 낳은 서구적 근대와 계몽 이성에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조선인의 입장”⁶⁾에 있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논의는 탈식민주의와 근대성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네 번째는 근대적 주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써 시각, 연애, 감성 등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 연구들이다.⁷⁾ 김은하는 이 소설이 “우울한 성격의 사람인 이인화의 주체 형성의 과정을 눈물에서 냉소로 가는, 감성의 서사”⁸⁾로 담아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희정은 낭만적 연애 문제와 식민지 근대화라는 객관적 현실로부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주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염상섭 소설뿐 아니라 「만세전」의 개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주체의 문제를 타자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피식민 주체를 개인적인 차원의 범위 내에서만 한정하고 있어, 식민 본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공간과 장소에 의한 주체성의 문제, 주체와 타자의 호명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감성의 변화와 이것을 증명하는 고백의 서술 등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배자의 내부와 외부(내지로 표현되고 있는 일본), 주체의 내부와 외부의 시선으로 타자성을 고찰하고 한다.

「만세전」은 두 개의 상이한 공간에서 당시 사회적 질서체계, 즉, 일본의 제국주의가 식민지 국민의 삶과 인식을 어떻게 변모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만세전」은 원래 「묘지」란 이름으로 1922년 7월부터 《신생활》지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 「묘지」는 잡지의 폐간(9호)과 함께 3회의 연재로 중단되었고, 이후 1924년 4월 6일부터 59회에 걸쳐 《시대일보》에 「만세전」으로 연재됨으로써 완결되었다.⁹⁾

6) 나병철, 위의 책(2001), 301 쪽

7)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염상섭 「만세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7권(2001), 54-80쪽; 김희정, 「「만세전」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제7권(2002), 192-216 쪽; 송기섭, 「<만세전>의 이인화 탐구, 『현대소설연구』, 제17권(2002), 125-145쪽; 김은하, 「근대소설의 형성과 우울한 남자: 염상섭의 「만세전」을 대상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권(2006), 65-87쪽.

8) 김은하, 위의 논문(2006), 83 쪽

「만세전」에서 여행을 통해 제시되는 여정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자신의 내부를 되찾는 동시에 식민 본국이라는 바깥을 되살피는 과정에 있다. 요컨대 제국에 완전히 동화될 수도 그렇다고 식민화된 본국에 충실할 수도 없는 경계자의 시선으로 이 서사는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타자성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양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타자성은 경계선 내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안과 밖을 뒤섞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부를 주체화 시키는 방식¹⁰⁾이다. 이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유지하면서 내부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계선을 해체하는 존재론¹¹⁾이다. ‘나’를 타자에게 드러내어 타자와 통하고, 타자의 도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타자성은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¹²⁾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인간은 타자의 시선으로,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
- 9) <만세전>의 개작과정은 <모자>의 제목으로 1922년 잡지 《신생활》에서 연재되다가 중단되었고 1924년 《시대일보》에 「만세전」으로 연재되어 완성되었다. 이후 1924년 8월 고려공사에서 단행본으로 「만세전」의 제목으로 간행되었고, 1948년 2월 개작하여 단행본 「만세전」이 수선사에서 간행되었다. 이재선, 「일제의 검열과 <만세전>의 개작」, 『한국문학의 이해』(새문사 1981).
- 10) ‘타자’, ‘타자성’은 문학이론이나 철학, 심리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테마로써 푸코의 경우 푸코의 사유는 ‘타자의 사유’라고 할 만큼 타자의 입장에서 동일자들이 그 타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억압하고 관리해왔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푸코는 이론의 차원에서가 아닌 권력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주체가 배제시키거나 전략적으로 관리한 타자의 존재에 주목한다. 뱅상 데콩브의 경우는 『동일자와 타자』에서 ‘타자를 동일자에 환원시키고 그림으로써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킴이 없이는 타자를 스스로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데콩브는 동일자가 ‘타자’에 대응하면서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과정에 대해 정밀하게 서술한다. 자크 라캉은 거울단계에서의 나는 타자와의 변증법적 동일시에 의해 객관화되기 이전의 주체이며 그 보편 구조 속에서 주체 기능을 부여하기 이전의 주체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울단계에서 타자와 구별하는 상징적 단계로 이행하면서 독자적인 주체가 탄생한다고 말한다. 권성우,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술출판사, 1999), 35-39쪽.
- 11) 나병철, 앞의 책(2001), 87쪽. 나병철은 타자성을 라캉의 이론으로 해석한다. 그는 “라캉의 타자성의 주체는 삶의 공간에서는 항상 결핍으로서의 욕망을 경험하며, 로고스 중심적 공간으로 이동해야만 충족된 의식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고스 중심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순간 주체는 유아론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했던 타자성을 잃어버린다...따라서 타자성의 주체는 그 순응적인 주체를(타자로서) 예측화하는 자기중심적 주체와 동전의 앞·뒷면을 이론다 고 보고 있으며 타자성의 주체는 자신의 내부를 주체화 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안의 눈으로 밖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로 외부로 봄으로써 그와 다른 내부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이며, 타자성의 입장이란 어떤 제도과 규약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에 동화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한다(35-46쪽 참조).
- 12) 쾨베탕 토도로프(저)/최현무(역),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 이론』(까치, 1987), 137쪽.

「만세전」¹³⁾에서 나타난 식민지인으로서 일본과 조선이라는 이중의 공간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방식의 타자화는 텍스트에서 비판적으로 또는 허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세전」에서 보이는 주체로서의 동일자가 타자에 대응하면서 타자를 배재하는 과정, 또는 타자에 의해 주체가 어떻게 타자화 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제국과 식민지의 영토라는 두 공간에서 타자화의 방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상되며 변이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염상섭 문학에서 「만세전」이 갖는 의미와 문학사에서의 위치를 고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II. 관계성에 의한 환멸과 은폐의 시선

「만세전」은 경험의 주체로서 유학생인 ‘나’(이인화)가 일본¹⁴⁾에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경성까지 여행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서사의 구조는 환자가 있는 공간적인 전방의 방향성을 향한 급진적인 진행의 구조보다는 여행의 도상에 있는 존재로서의 주인공이 계속 우측과 좌측의 좌표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탈하면서 관찰하는 퍼스펙티브¹⁵⁾를 갖고 있다. 식민 본국 즉 지배자의 공간에서 식민지 유학생의 신분으로 존재하는 ‘나’와 식민지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현존하는 ‘나’는 비록 동일인이지만 다른 인식의 상태로 행동하는, 그 어느 공간에서도 동화되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만세전」에서 주체의 인식의 구조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공간은 자아와 타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의 문제를 야기¹⁶⁾시킨다. 주체의 행동양식과 인식의 진폭은 공간의 좌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소설에서 내지로 표현되는 동경과 조선의 부산, 경성 등은 제국과 식민지라는 공간의 차이로 인해 담론의 체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공간에 따라 타자성의 양상도 다르게 나

13) 본고에서 참고할 텍스트는 1924년도 고려공사판의 「만세전」이다.

14) 고려공사판에서는 이인화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본문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15) 이재선, 『한국소설사』(민음사 2001), 275 쪽

16)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문학과지성사, 2003), 259쪽.

타날 수밖에 없다. 먼저 일본에서 서술자가 타자성을 경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제국의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인화는 동경에서 접촉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타자화 된다. 소설에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음으로써 이인화의 인식의 상태를 알려준다. 하숙집의 하녀인 ‘찬밥쟁이’는 “밤낮 찬밥쟁이만 갖다가주는 下女이기 때문에 내가 지어준 別名이다” 하숙집 주인을 ‘주인여편네’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신의 학교를 ‘W’대학, 학교의 주임교수를 ‘H교수’라 부르며, 술집의 이름 또한 ‘M한’, M현의 여급 ‘P’, 학교 동급생 ‘X 군’ 등은 서사에서 기호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식민 본국과 식민지인이라는 지배관계를 부호화한 것이다. 즉, 피지배자의 글쓰기는 지배자가 연상되는 제국적 수사와 관련되면서 서사가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¹⁷⁾ 제국주의적인 수사의 일종으로 ‘관찰자의 시선¹⁸⁾에서 식민본국의 지형적 지표는 비우호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지배자인 그들에 대해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 그들은 단지 사물적 존재라는 것을 피지배자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20~30년대의 소설 중에서 김동인이나 현진건의 소설에서 이니셜이 사용된 적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동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소설들에 쓰인 영문 이니셜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이름이 명명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지위, 성별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만세전」에서는 서술자의 심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니셜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자’가 일본인 입에도 불구하고 이니셜로 기표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름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이인화가 유일하게 지배자로서의 타자가 아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담보하는 증거로써, 그리고 서사의 결말에서 자기고백의 서를 올리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니셜로 표기된 인물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건의 연속에 불과하며 이들은 개별화되어 이인화의 자아각성이나 인식의 변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17) Pratt, Mary Louise, *Im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Routledge, 1994), pp. 6-7.

18) Mcgee, Patrick, *Telling the Other: The Question of value in moden and postcolonial writing*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알 수 있다. 즉, 서술자는 인물들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그 공간에서 스스로 타자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H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가) 教授室에는 마춤 H 主任教授가, 書類가방을 만져거리면서 나오라고, 머뭇거리며있었다. 나는 H 教授가 帽子를 쓰고나오기를 기다려서 좁은 마루한구석으로 請 하야가지고 나직~하게, 來意를 말하얏다 (중략) 意外에 업는 承諾을 하야주기 때문에, 나는 割引券까지 어더가지고 나오기는 나왔스나 試驗치르기가 구치안어서하는 空然한 口實이라고, 誤解나하지 아니할가하는 自曲之心 이 처음부터 압홀서 々々, 좀 주췌 々々 한 것이 암만하야도 不愉快하얏다 終點으로나오서 K 町 으로 向 하는 電車에 울너안져서도, 아까 H先生더러, 얼 씬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病患이…」라한것을, 다시 생각하야보고, 혼자 더욱히 췌부드듯한 생각을 익이지못하얏섯다.19)

나) 自己自身에게對한反抗인지, 自己以外의 무엇에게 對 한 反抗인지 그것조차 明瞭히 깨닫지 못하면서, 喋혀노코 압혜닥치는대로 무엇이든지 해내이라 는 듯한 터문이업는 鬱憤이, 가슴속에서 용심지카티 치미러올러왔다. (중략) 그것은 맞치 鐘路에서 썸마즌놈이, 行廊뒤스골에서 눈을흘기다가, 自己의弱한 것을 憤慨 하야보기도하고, 혼자 辨明하기도하야보는세움이엇다. 그러나 이러하게집 々病이나서, 몸부림을 하는 一種의 發作的狀態는, 自己의 內面에 汲게 파고드러안즌 「結縛된自己」를 解放하라는 慾求가, 猛烈하면 猛烈할사록, 그 發作的 程度가 한층더하얏다. 말하자면 有形無形한 모든 矛盾에서, 自己를 救援하야내이지안으면, 窒息하겠다는 自覺이 分明하면서도, 그것을 實行할수업는 自己의 弱點에 對 한 憤懣과 憐憫과 辨明이엇다.20)

가)의 인용문에서 ‘나’는 H교수에게 귀국을 해야만 하는 사정을 말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시험을 보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자곡지심(自曲之心)’이 생기는가 하면, 어머니 병환 때문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교수와 제자간의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 ‘나’의 내부에 위치한 위계의 표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불유쾌 하다는 것과 사건이 발생한 한참

19) 염상섭, 『만세전』(고려공사, 1924), 5-6 쪽

20) 위의 책, 22-23 쪽.

후에도 “찔부드러운 생각”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국주의자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식민지 현실에서 자신은 언제나 타자로 존재해야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모멸과도 연결된다.

나)의 인용문은 M현에서 정자 P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하숙으로 돌아오면서 느끼게 되는 번뇌와 울분을 묘사한 것이다. 1인칭 서술시점으로 제시되는 서사는 ‘나의 자기 분석적이고 자기 성찰적 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심리와 주위 인물들을 평가하고 해부하며, 내적 긴장을 사회현실에 대한 관찰로까지 확대한다. 지적인 불확실성,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주칠 때의 당혹감 이상의 감정은 여기에서 실체를 동반하지 않는다. 즉, 현실에 의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모멸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다. “熱病에나 띄운놈 貌樣으로, 폭켓트에 찢넛든 두손을 쓰내어가지고, 썩리 쳐보기도하고, 입엇든 外套나 옷저고리를 버서서, O橋다리미트로 보기조케던저버 렷스면” 하는 공상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경우 자아의 감정은 제국의 영토에서 행동을 수반할 수 없는 자기 연민과 분노로 침잠해야만 한다. 이 상황에서는 실체가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인식, 즉, 주체의 타자되기 만이 존재한다

일본에서의 불가시적으로 제시되는 감정만이 들뜬, 알 수 없는 분노는 이후 서사에서 조선의 식민지 현실을 직접 목격한 후의 인식과 비교 제시된다. 전자가 자각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극히 주관적인 울분이라면, 후자는 객관성을 담지한 총괄적인 자각의 상태에서 토로하는 자의식적인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인화가 머무르고 있는 일본은 귀향해야할 고국보다는 덜 억압적이지만 이것은 은폐된 자아에 의해 조장된 식민지인의 가려진 얼굴이 상징화 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식민주체는 자아와 타자의 독립적 상호관계가 아닌 자아의 타자성이라는 문제로 환원되는 셈이다.²¹⁾ 제국의 공간에서 ‘나’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자유롭지 못한 자아만을 갖고 있을 따름이며,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라는 비애성과, 결핍은 어느 공간에서도 충족된 의식을 지니지 못한 채 가장된 ‘자아’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

21) 박주식, 앞의 책(2003), 280쪽. 호미 바바에 의하면 식민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주체와 정체 그리고 그 담론은 그것이 지배자의 것이든 아니면 피지배자의 것이든 차이와 분열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한다. 즉, 주체의 정체성에는 이미 타자가 섞여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형태의 정체성은 혼종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것은 ‘나’가 스스로 타자가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일망감시적 시선에 의한 ‘봄-보임’의 역학

식민 본국 일본에서의 타자성 발현과 여행 중에 드러나는 인물의 타자성은 서사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여행 서사로서 가능한 공간의 이동과정이 서사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인화의 귀국의 의도는 불순한데 아내의 임종을 보기 위함이 아닌, 단지 “實相돈한分이라도 쓰라면”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試驗본다는 핑계를 하고 歸國도 고만 두어버릴가하는 생각이업지안엇”지만은 “아버님 꾸지람이나 家庭의 是非도 是非려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준 백원을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국으로의 귀국을 여행이라 표현하며 M현에서 정자, P子와 술을 마시고 11시 기차를 탄다. 그는 고베에 가서 하루를 묵으며 올라를 만나고, 조선에 도착하고도 김천의 형님 댁에 들르기까지 하며 최종 도착지 경성으로의 여정을 지연시킨다. 여행을 떠나는 시점에서부터 인물과 지명은 약자로 표현되지 않고 ‘병화’, ‘올라’, ‘조의관’ 등의 공식명칭으로 서술되는데, 이것은 자아와 타자 간의 관계 인식의 여부와 연결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일본인들과는 대조적인 명명법을 사용함으로써 인물 간의 관계성에 관한 서술자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묘사에 있어서도 동경에서의 서사는 관망의 태도로서 일관되는 묘사였으나,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식민지 주체로서 직접 체험 되는 사건이 서술되면서 경험적인 묘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스스로 타자화된 제국 본국을 벗어나고 있다는 심리적인 측면과 모국으로 향하면서 시작되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각인과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식민지 국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식민지 조국에 대한 민족의 발견과 동일하게 시작되는데 때로는 자기혐오 의식으로 때로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재현된다.

이인화가 여행 중에 타자성을 경험하는 것은 하관에 도착해서이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김천의 형님 댁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이인화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며 타자화 되는 자신

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인화는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찰자들에 의해 주시되고 있음을 깨닫는데, 서사에서 이것은 배로 갈아타기 위해 수속을 하는 동안 그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임바네쓰’의 감시와 목욕탕에서의 일인들의 감추어진 시선들로 드러난다.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무서움을 자아내면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 드러나는 것인 이것은 여기에서 ‘임바네쓰’로 표상된다²²⁾ 그래서 ‘임바네쓰’는 서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를 지배하는 시선으로 등장하며 인물이 식민지인으로서 지배의 권력 하에 놓여있음을 깨닫는 기표의 역할을 한다.

내 名銜을 바다들고, 내가 흥덩을 다 하기까지 기대리고잇든 임바네쓰는 또 괴롭게 군다. 나는 그래도 亦是 잠갔고, 그 名銜을 도로뺏아서서, 住所를 記入 하여주고나서, 사노앗든 物件을 들고 짐노은 자리로 와서안졌다. 厥者는, 또 쫓차와서, 「年歲는? 學校는? 무슨일로? 어디까지? …」하며 짓구지 승강이를부린다. 나는 시럽시 화가나서, 그까짓건 무리 무엇에쓰라느냐고 소리들지르라다가, 외마디소리로 簡單 々々히 對答하여주고 부리낙케 짐을 들고 待合室밖으로 나와버렸다.²³⁾

임바네쓰는 하관에서 배를 타는 순간부터 이인화가 조선에 도착해서까지 그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시한다. 그는 이인화의 짐을 수색하는가 하면 나이와 학교 그리고 무슨 일로 조선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캐묻는다. 임바네쓰의 존재는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가시성의 상태로 지배자의 권력 형태로 나타나면서 참혹한 ‘나’ 자신의 정체성은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나’가 철저히 그들에게 개별화된 타자의 층위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임바네쓰의 검사를 끝내고 찾게 되는 선실안의 목욕탕에서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식민

22) 프로이트는 이러한 감정은 ‘운하임리헤 *das Unheimliche*’(불안하게 하는 야릇함)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운하임리헤는 괴롭고 불안스런 두려움을 자아낸다는 의미와 아주 가까운 층위에 있다. 은밀한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날 때, 그것은 운하임리헤하게 된다. 엔치는 운하임리헤의 감정을 지적 불확실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것을 어떤 사건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나 우리에게 친숙한 것에서 벗어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운하임리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막스 밀네르(저)/이규현(역), 『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문학과 지성사, 1997), 216~264 쪽

23) 염상섭, 앞의 책(1924), 48~49 쪽

지 조선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부끄러움’은 일본인들에게 자신이 일본인인척하는 심리적 위선과 그림에도 스스로에게는 조선인이라는 수치심이 유발되는 양가적인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스스로 은폐된 조선인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임바네쓰의 호출로 드러나고 목욕탕의 수많은 시선들로부터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배라는 공간은 지배자의 시선에 둘러싸인 원형감옥과 같이 인식된다. 권력의 근원은 어떤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면, 빛, 시선 등의 신중한 구분 속에 그리고 내적인 매커니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서 개개인이 포착되는 그러한 장치 속에 존재한다.²⁴⁾ 요컨대 일망감시적(panopticon)²⁵⁾시선에 포위된 인물에게 지배자의 시각은 불가시적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면서 임바네쓰는 제국의 눈이라는 환유의 일종으로 기능한다.

서사에서 이러한 양상은 조선이라는 식민지 영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일망감시적 지배자의 시각으로 통제되는 자아의 심리는 좀 더 예각적으로 서술된다. 이인화가 부산에 발을 디디면서 서사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선실 안에서의 사건이 개인에 밀착되어 서술되었다면, 식민지 영토에서는 대 사회적 문제가 실재 현실과 만나면서 서술자의 냉소적인 서술은 더 침예하게 식민지의 현실을 고발한다.

누런洋服바지를 웅그바지로입고 짝달막한키에 구두숫까지 철々나려오는 길다
란 環刀를 쏴면서, 朝鮮사람의 憲兵補助員이 쓰드러왔다 (중략) 나는 空然히
가슴이 선뜻하얏스나 이 車間에는, 나를 尾行하는사람이잇스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安心이되였다. 車間속은 꽤々하고 憲兵補助員의유착한구두소리만

24) 미셸 푸코(저)오생근(역), 『감시와 처벌』(나남출판, 1994), 298쪽.
25) 푸코는 일망감시장치를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권력의 동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계장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험을 행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개인을 훈육하거나 재훈육하는 일종의 기계장치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부단히 평가하고, 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고, 또한 그의 모습도 쉽게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일망감시장치는 일종의 권력실험실로 운용되며 잔인하고 교묘한 동물원 우리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위의 책, 289-329쪽 참조.

쭈뼛 ~난다. 그러나 여러사람의가슴은 껌々한 「람프」의심지스불이 썰리듯이 썰리었다. 한사람두사람 들여다보고지나친뒤의사람은自己是 안이로구나하는 가벼운 安心이 가슴에나려안는同時에 김흔한숨을쉬는모양이 얼굴에 顯然히 나타났다. 憲兵補助員의 발자취는 漸々갓갓위왔다. 憲兵補助員이 내곶헤와서 웃듯섰다. 나는 가슴이 쭈금하여 無心쿠 치어다보았다 26)

위의 인용문은 이인화가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묘사한 것이다. 기차 안으로 들어오는 헌병보조원의 모습을 보고 승객과 ‘나’는 매우 놀란다. ‘나’는 헌병보조원의 등장에서 ‘가슴이 선뜻 해지며 자신이 ‘람프’의 불처럼 떠는 것을 느낀다. 여기에서 권력의 주체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인들은 죄인의 형상으로 대변된다. 인물은 식민지 전체가 가시적, 또는 불가시적으로 작용되는 감시와 권력 아래에서 원형감옥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감금자로서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일망감시장치(27)에 의한 가시화된 권력은 식민지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폭정의 상태로 교묘하게 변질되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자아의 내적심리까지 파고들어 자아를 통제하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자아에게 은폐되어 있는 타자성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 또한 서술자는 여기에서 인물의 심리를 통해 철저히 타자화 되는 식민지 현실의 복잡성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타자화의 방식은 식민지인들이 일본인화 되어가는 모습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김의관’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경성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는 김의관을 생각나게 하는 ‘金테眼鏡’을 보게 된다

妓生하고 同行인지 혼자가는 지는 모르나 수달피털을대인 훌렁한外套를입고 金테眼鏡을 버티고안짓는 것이 돈푼잇서보이기도하나 眼鏡넘어로 이사람저사람의얼굴을 유심히바라다보는 작은눈은 狡猾하야보이었다(125~126 면).

26) 염상섭, 앞의 책(1924), 141~142쪽

27) 도리트 콘은 일망감시주의(panopticism)가 실제세계에서 권력관계가 규정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구세계 내에서 재현된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설의 서술자와 허구적 인물 사이에 속하는 형식적인 관계에 일망감시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정전에 속하는 소설들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Chon, Dorrit, *The Distinction of Fiction* (The Johns Hopkins U. P., 1999), pp. 163~180.

위의 인용문은 김의관으로 비유되는 인물에 대한 서술이다. 기차가 추풍령에 도착했을 때 사냥을 갔다 오는 일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금테안경’은 자신과 일본인과의 유독한 관계를 자랑삼아 떠들어 댄다. 이것을 보는 ‘나’는 ‘금테안경이 김의관과 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하며, 김의관의 집에서 중학교를 통학했을 당시를 회상한다. 일본인에게 붙잡혀 가면서도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김의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마음에 愉快도할 썩안이라 第一 무서운사람이 第一 못나보이고, 第一 우습든 金議官이 第一 잘나보이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붙잡혀 갔을 때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고개를 측느리디리고 洋服쟁이에게 끌리어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는 김의관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김의관은 일본인들에게 빌붙어 한자리라도 얻으려고 수작을 부리는가 하면, 식민지적 상황을 교활하게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자로 변화된다. 이러한 모습은 경성 집에 도착해서 김의관을 직접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는 처와 첩에게 버림받고, 집에서도 쫓겨나 ‘나의 집 사랑방에 기거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협잡을 해서 남에게 돈푼이라도 값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금테안경’이나 김의관 이 둘은 일본인과의 동화를 표방하는 식민지인의 비굴한 모습으로 대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자화 되는 자기각성의 과정이 없이 우회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식민지인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측면 모두에서 소외되는 결말을 맞고 있는 것이며, 이인화는 이들을 통해 주체의 타자화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서사에서 이인화에게 타자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들은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식민지의 풍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인화는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그곳의 변화기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왜식으로 지어진 2층 건물을 보게 된다. 서술자는 일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지역의 현상으로서 이송문화가 근대화의 가장된 모습으로 전환된 이와 같은 풍경들을 묘사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자신의 영토에서 쫓겨 난 조선인들, 그리고 술집여급의 조선인 혐오라든지, 환도를 찬 보통학교의 일인 훈도의 모습, 범죄를 저지르고 일인들에게 잡혀가는 결박된 조선인들의 모습에서 철저히 타자화된 피식민지인들의 실상을 묘사한다. 서술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사물에 대한 단선적 파악이 아닌 상대적 파악을 통해 인물의 주관화뿐만 아니라 스스로 객관화되는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인물의 타자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주체에게 이러한 타자성의 강화는 내면의 사유를 동반하게 되면서 자기반성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다.

IV. 자기고백을 통한 반성적 사유와 근대의 탐색

「만세전」의 서사는 모두 8장 195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 전체의 분량에서 보면 일본을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하기까지의 만 나흘이 조금 안되는 여정을 서술하는데 무려 148면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경성 집에 머문 보름정도의 기간은 불과 45면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만세전」의 작품 의도가 여정에서 체험되는 식민지 현실과 실상이 인물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앞의 논의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경성 집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관계성에 의한 타자성과 여행 중에 드러나는 일망감시체제에 의한 타자성이 결국 인물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타자성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는 객관적 현실이 내면화되는 과정, 즉 이인화가 조선인임을 자각하는 과정과 조선의 현실이 ‘무담’이 되는 것 그리고 아내의 죽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땡은 아내’로 그리고 죽음으로 연결되며, ‘묘지’는 암울한 시대의 병리적 현상을 보여주는 기표들로 작용한다. 소설에서 <공동묘지법>(28)에 대한 서술은 세 번 반복된다.

첫 번째로 이인화는 김천 형님집에서 묘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두 번째로 경성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갖장수와 묘지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 번째로 아

28) 서사에서 다루어지는 공동묘지법은 1912년 6월(명치15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공동묘지규칙>으로 공포되었다. 이후 1920년에 개정되는데 이것은 3·1 운동으로 인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이다. “所謂墓地規則에 就 近來墓地規則의 改正에 就 各種의 說이 有한 模樣이니(중략) 다수의 인사는 萬萬如斯 한 ** 偏見은 無한줄노하시만은 或一部의 人으로** 等の 說에 讀解하는 人士가 不當할터인 故로 一言으러써 沒의 改正의 **에 對하여 說明을 加코져하는바 이라 俗에 所謂共同墓地規則이라 함은 明治四十五年 六月에 朝鮮總督府령으로 *布된 墓地, 火葬,***** 規則인데 右 規則에 依하면 凡墓地는 總히 府面里洞其他地方 公同團體又是 此에 *할 者이 아니면 改設치 못하게 되어.” 「공동묘지규칙」, 《동아일보》, 1920년 9월 3일.

내의 장례를 치루면서 묘지법에 대해 가족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 만큼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적으로 이 소설에 대한 원제목이 ‘묘지’였듯이 여기에서 묘지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소설에서 묘지는 식민지 영토 전체를 암시하는 것으로, 또는 지배자에 의해 식민지인들이 권력의 질식 상태에 놓여 있음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뒤에 따르게 되는 인물의 변화된 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귀향하기 전에 했던 행동들과 목적 없이 을라를 만나러 가는 등의 즉흥적이고 무의미한 행동을 했던 이인화가 자발적으로 아내의 삼일장을 치르고,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키기로 김천에 살고 있는 형과 약조하는 행위 등은 그가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 획득 되는 자아의 각성은 과히 줄탁동시(茁啄同時)에 비견될 만 것으로 의사죽음을 경험한 자아가 재생을 향한 길을 모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정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인물의 자각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편지이다. 편지는 고백체의 사적 양식의 정점을 이룬다. 고백은 한 개인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 자신을 확정 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청자에게 자신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자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고백체의 서사양식은 흔히 서술자와 주인공이 동일 인물이 되는 일인칭 주인공시점의 형태적 특징을 내재함으로써 서술자는 ‘지금’, ‘여기’의 사고, 지각, 감정,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자아 본원성을 핵심적 요소²⁹⁾로 갖게 된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 주체는 자아의 정신적인 분열이나 위기를 드러내며 상실감을 편지로써 서술한다. 여기에서 피화자가 주체가 아닌 타자로 설정될 경우 자신의 존재증명에 대한 물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자기고백의 서사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경우 고

29) 함브르거에 의하면 일인칭 시점에서는 인물로 나타나는 한 개의 일인칭 서술자가 있고, 서술행위 속의 그의 여기, 지금 있음(here and now: 자아 본원성)을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지하는데 그것은 인격화된 서술자가 그가 체험한 것, 또는 한 이전 시점에서 관찰한 것을 또는 그것에서 배운 것을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재섭, 「한국 근대 고백체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3), 11쪽.

백은 의사소통 회로의 모델위에 기초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백 주체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거 기억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심적 부담을 덜게 되고, 개인의 내적 갈등을 소멸시키게 된다.³⁰⁾ 「만세진」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편지이다. 이것은 주체의 자기상을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고 자아의 복합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설에서 편지의 서술기법은 인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침입 장치로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실성에 대한 반영으로서 자아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된다.

나는 스스로를 救하지안으면 안이될 責任이잇는것을 깨다랏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차자내이고 開拓하야나가지안으면안이될 自己自身에게 스스로 賦課한義務가잇는 것을 깨다랏습니다. (중략) 이제 歐洲의天地는 그 慘憺하든 屠戮도 終焉을告하고 休戰條約이 完全히 成立되지안엇습니까? 歐洲의 天地 非但 歐洲天地뿐이리요. 全世界에는 新生の曙光이 가득하야것습니다. 萬一 全體의 「알파」와 「오메가」가 個體에잇다할수잇스면 新生이라는 榮光스런 事實은 個人에게서 出發하야 個人에 終結하는것이안이겟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롭은 生命이 躍動하는 歡喜를어늘때까지 우리의 生活을 光明과 政道로 引導하십시다.³¹⁾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는 직접적인 자기 각성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만큼 길게 서술되어 있다. 189쪽에서부터 194 쪽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섯면에 걸쳐 서술되는 편지는 개인의식의 획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드러나는지를 먼저 서술한다. 식민지 현실에서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單한씨’는 ‘나’의 자각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아내는 사라졌지만 “너를 스스로 救 하여라! 너의 길을 스스로 開拓하여라”의 유언은 “貴엽고重한 敎訓”을 준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무덤으로 비유되던 조선의 현실에 ‘新生の 曙光 이 비추고 있으

30) 여기에서 편지는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쓰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발신자는 물론 이인화이고 수신자는 정자일수도 있으나,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인화 자신을 수신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인화 자신이 수신자로 규정될 경우는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기정체성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31) 염상섭, 앞의 책(1924), 191~192쪽

며, ‘나’는 스스로 약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미래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해성사와 같다. 고백의 원인은 한 인간의 소외감, 즉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낮은 존재로 느끼게 되는 이화감, 고립 등 자아 정체성의 상실과 관련된다. 그래서 고백은 인간 사회가 갖는 부조리한 면에 대한 감정의 절실한 토로이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구테기가 들끓는 무담”은 타자성 인식의 전 상태에서의 무자각적인 자아를 표상한 것이라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는 식민지 영토에 광명이 올 것을 기원함으로써 변화된 자아를 편지의 매체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고립된 개인은 편지로써 자아의 존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순수성을 의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자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라는 국권 상실의 현실에서 지식인들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 당시의 작가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아의 내면을 자연적 본질에 기대어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적 생활을 통해 사회적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들에 매진하게 되면서, 고백적 서술은 1920~30년대의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고백적 서술에서 직접적으로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편지는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영된 자아의 모습을 구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만세전」에서 이인화가 정자에게 쓰게 되는 장문의 편지는 이인화의 변화된 인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사유에 대한 반성이 편지로 인해 이루어짐으로써 자아의 부재의식이 확실하게 전환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염상섭 초기소설은 자의식적 독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세전」의 1인칭 서술시점은 이것의 연장선에서 작가 자신과 서술자, 그리고 인물이 등치됨으로서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3·1운동이라는 만세운동이 자아의 각성에 따른 잠재되어 있던 자유에 대한 욕망이 폭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염상섭은 「만세전」의 이인화라는 인물을 통해 타자성에 의한 자기반성적 사유와 더불어 ‘신생에 대한 개아의 싹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V. 나오는 말

「만세전」은 타자화 된 경험자아가 담론의 주체인 서술자아로 전이되는 각성 과정을 여행의 형식을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타자성을 인식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만세전」에서 여행의 서사는 식민지 백성에게 부관된 시련, 권력자로부터의 감시로 인한 타자화를 통해 현실을 자각하고 성숙에 이르는데 일종의 문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물의 반성적 사유가 타자성의 인식이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타자성’은 염상섭이 자신의 소설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근대인의 초상을 해부하는 기제로 사용함으로써 「만세전」은 한 개인이 근대인으로 갱신되는 것을 형상화 하고 있다.

「만세전」에서 타자성은 공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 소설에서 공간은 자아와 타자의 차이를 변별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인식의 분열과 균열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식민화는 결국 필연적으로 영역의 문제, 영토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 본국에서 피지배자는 지배자를 흉내내기(mimicry) 할 수 밖에 없고, 피식민지에서는 노골적으로 지배자에게 감시당하는 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자성은 이러한 두 공간에서의 주체가 어떻게 재현되고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식민 본국인 동경에서 타자성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영문이니셜과 별명으로 표기되는 인물들의 이름과 장소는 주체의 도덕적 정감이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은 관계성의 상실로 규정된다. 즉 인격적인 존재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체는 스스로 그들에게서 타자화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자기모멸과 자기연민의 감정은 주체의 타자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에서 자아는 그 동일화의 굴레에 함몰되어 ‘나’를 망각하고 분리하고 삭제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주체는 자아와 타자의 상호관계가 아닌 자아의 타자성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타자성의 또 다른 양상은 여행의 서사를 통해 구현된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임바네쓰의 시선은 일망감시체계의 권력 형태로 구조화되면서 타자성은 확인되고, 또한 피식민지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타자화 시킴으로써 주체

는 다시 한번 타자와 주체의 양가성을 경험한다. 또한 이러한 타자성의 경험은 자기사유를 통해 동일자에서 배리되는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식민 본국에서는 스스로 타자화 되는 방식을 취했다면 이중의 시선이 공존하는 공간(부산과 경성)에서 주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타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던 이인화가 부끄러움이라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그리고 ‘타자화’의 위치 전도를 통해 객관적 현실을 내면화함으로써 ‘신생(新生)’의 빛을 염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성은 소설에서 정자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로 인해 주체의 자기정체성의 완성을 고지하는데, 여기에서 편지는 주체 스스로에 대한 자기고백의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무덤으로 지칭되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이 편지를 통해 신생의 빛을 담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치환되고 있다. 이 고백의 서는 공간에 따라 타자성이 다르게 발현된 것과 관계하여 타자라는 미지의 대상에 자기 이미지를 투영하고,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벗고 주체성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은 이러한 서사적 장치를 이용하여 타자성의 반성적 사유를 통해 형성된 ‘나’는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주체이며, 이러한 진동이 자기 지양이라는 내면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염상섭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소설은 ‘조선에서 진정한 근대는 무엇인가’라는 화두와 연결되고 있다. 그는 「해바라기」, 「너희는 무엇을 어뎅느냐」, 「사랑과 죄」, 「진주는 주었으나」 등의 신여성 주인공들을 통해,³²⁾ 또는 여러 계층에 대한 삶의 질곡을 보여주고 있는 「삼대」와 그 연작인 「무화과」, 「백구」, 그리고 인간 심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심」, 「두 파산」, 「모란꽃 필 때」 등을 통해 그 시대에 태동하고 있던 근대성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근대성은 사회적·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서구의 세계 지배권이, 그리고 사상적인 면

32) 염상섭은 당대의 신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는데, 나혜석을 모델로 한 소설인 「해바라기」, 김일엽을 대상으로 한 「너희는 무엇을 어뎅느냐」, 그리고 통속소설로 분류되는 「사랑과 죄」, 「진주는 주었으나」 등이 있다. 그는 중·장편소설을 통해 신여성의 복합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한편 신여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함께 하고 있다.

에서는 계몽주의에 기초를 둔 교화와 계발의 이념이 정착된 시기이다.³³⁾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대성이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갱신하는 시대정신³⁴⁾ 즉, 새로운 것에 반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의 성찰성이라 한다면, 염상섭 초기 소설에 속하는 「만세전」은 근대적 자아를 형상화하고자 했던 작가의 형식적 실험의 정점에서 있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우, 『모더니티와 타자의 현상학』, 서울: 솔출판사, 1999.
- 김병구,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 「만세전」과 「삼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 권 2003, 173~195쪽.
- 김상태, 「염상섭문학의 날과 씨」, 『염상섭 문학연구』, 서울: 민음사, 1987.
- 김은하, 「근대소설의 형성과 우울한 남자: 염상섭의 「만세전」을 대상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 권, 2006, 65~87 쪽
- 김희정, 「「만세전」과 근대성」, 『여성문학연구』 제7 권 2002, 192~216 쪽
-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2001.
- 남상권, 「「만세전」에 나타난 알레고리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40 권 2002, 391~425 쪽
- 박재섭, 「한국 근대 고백체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염상섭 「만세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6 권 2001, 54~80쪽.
- 박주식, 「제국의 지도 그리기」,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 서재길, 「<만세전>의 탈식민주의적 읽기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서울: 소명출판 2002.

33) 박주식, 앞의 책(2003), 261 쪽 박주식은 근대성이 지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 하나의 시대 개념이자 담론체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계몽주의 출현과 함께 현대(the modern)는 비문명화되고 원시적인 과거에 비해 우월한 시대로 파악되었고,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서구 세계는 아직 과거의 틀 속에 존재하는 비문명화 된 원시 사회를 정복하여 교화하고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34) 앤소니 기든스(저)/이윤희·이현희(역), 『포스트모더니티』(민영사, 1994), 197 쪽 기든스는 근대성의 특징으로 시공간의 장거리화, 신뢰, 성찰성을 들고 있다.

- 송기섭, 「<만세전>의 이인화 탐구」. 『현대소설연구』 제17권, 2002, 125~145쪽.
- 송하춘, 「염상섭의 장편소설 구조」. 『염상섭 문학 연구』. 서울: 민음사, 1987.
- 신종곤, 『1920년대 문학의 재인식』. 서울 깊은샘 2001.
- 염상섭, 「만세전」. 경성: 고려공사, 1924.
- 오윤희, 「한국근대소설의 식민지 경험과 서사전략연구: 염상섭과 최인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우정권, 「염상섭의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한국현대 문학의 글쓰기 양상』.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2.
- 유병석, 『염상섭 전반기 소설 연구』.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85.
- 유종호, 『염상섭』.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선영, 「시각상의 진보성과 회고성」. 『염상섭 소설전집 1』. 서울: 민음사, 1987.
- 이재선, 「일제의 검열과 <만세전>의 개작」. 『한국문학의 이해』. 서울: 새문사, 1981.
- 이재선, 「<만세전> 원작론」. 『한국문학의 원근법』. 서울: 민음사, 1996.
- 이재선, 『한국소설사』. 서울: 민음사, 2001.
- 정연희, 「「만세전」의 서술기법과 구조연구」. 『현대소설연구』 제3 권 2000, 117~136 쪽
- 조남현, 「염상섭 소설의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시론」. 『염상섭 문학연구』. 서울: 민음사 1987.
- 채훈, 「<만세전>론」. 『염상섭 연구』. 서울: 새문사, 1982.
- 하정일,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서울: 소명출판 2000.
- 막스 밀네르(저)/이규현(역), 『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 미셸 푸코(저)/오생근(역),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1994.
- 앤소니 기든스(저)/이윤희·이현희(역),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1994.
- 즈베탕 토도로프(저)/최현무(역), 『바흐뎀: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서울: 까치 1987.
- Chon, Dorrit, *The Distinction of Fic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99.
-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Loutledge, 2001.
- Mcgee, Patrick, *Telling the Other: The Question of Value in Modern and Postcolonial Writing*. Ithaca: Cornell U.P., 1992.

국 문 요 약

본고에서는 「만세전」에서 보이는 주체로서의 동일자가 타자에 대응하면서 타자를 배제하는 과정, 또는 타자에 의해 주체가 어떻게 타자화 되는지에 대해 고찰했으며, 동시에 피식민지와 식민지의 영토라는 두 공간에서 타자화의 방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상되며 변이되는지 살펴보았다. 「만세전」은 식민지인으로서 자아를 되찾는 동시에 식민본국이라는 바깥을 되살피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여행을 통해 제시되는 여정은 식민지 백성에게 부과된 권력자의 일망감시적 시선에 노출된 자아의 심리를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원형감옥과 같은 심리적 지형도를 제시하고 있다.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던 ‘내가 부끄러움이라는 정서적 환기를 통해, 그리고 ‘타자화 된 위치의 전도를 통해 객관적 현실을 내면화함으로써 ‘신생’의 빛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반성적 사유를 통해 형성된 ‘나는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주체이며, 이러한 진동이 내면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상’은 염상섭이 자신의 소설에서 재현하고자 했던 근대인의 초상을 해부하는 기제로 사용됨으로써 소설에서 한 개인이 근대인으로 갱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투고일 : 2007. 1. 3.

● 심사완료일 : 2007. 2. 27.

● 주제어(keyword) : 타자성 (otherness), 주체 (subject), 자기반영적 사고 (self-reflective thought), 일망감시체제 (panopticon), 자기고백 서술 (self-confession narrative).